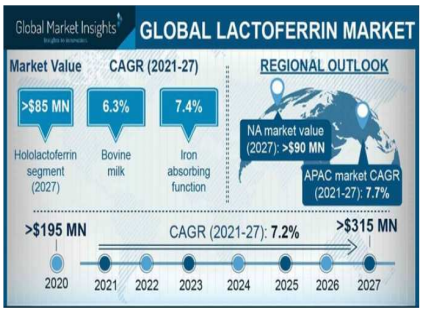
Global Dairy Report
글로벌 낙농뉴스
해외 정책동향 및 낙농뉴스

2021.4.13 | www.dairy.or.kr | 통계조사팀(044-330-2072)

[시장동향] 세계 락토페린 시장 연평균 7.2% 성장 전망 -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 발표

– 면역강화는 물론 영유아용 조제분유, 스포츠 음료 수요 증가로 시장 점유율 확대될 것



면역력 증진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2021년부터 2027년 세계 락토페린 시장이 연평균 7.2%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락토페린은 인간과 젖소의 초유에 함유되어 있는 항바이러스 물질로 면역세포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에, 최근 시장조사연구기관인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7년까지 전 세계 락토페린 시장 규모가 3억 6,410만 달러(약 4,089억원) 규모를 넘어서며 연평균 성장률(CAGR)이 7.2% 이상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어린이 영양 결핍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영유아용 조제분유 제품 수요는 물론 스포츠 음료 제조를 위한 분말 형태의 성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분말 락토페린 시장은 연평균 7.7%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인 전염병 확산으로 면역력 및 질병 저항력 향상을 위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면역강화를 위한 락토페린 수요가 향후 연평균 8.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식품시장의 점유율이 계속해서 확대될 전망이다. 〈 출처 : dairyindustries.com, 4월 9일자 〉

[낙농경영] 英, 낙농업의 탄소배출 제로화를 위한 연구 착수

– 비용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탄소 배출 절감 방법 제시 예정

영국에서 낙농업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된다.

지난 2019년 기후변화위원회(CCC)가 향후 30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줄여 탄소중립을 실현하도록 권고한데 이어 정부는 오는 2050년을 목표로 탄소 중립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최근 국립낙농자문회사인 데어리 그룹은 앞으로 1년간 낙농업의 탄소 배출량 측정 및 절감은 물론 낙농가들에게 비용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탄소 배출 절감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공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영국 낙농산업에 대한 연구를 검토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주요 전략을 파악해 실질적으로 벤치마킹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프로젝트 관계자는 "이를 통해 환경 보존을 위한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속 가능한 낙농산업은 물론 탄소중립 실현에 한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 전했다. 〈 출처 : farminguk.com, 4월 8일자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